

## 보도자료



(주소) 16514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55 (팩스) 031-278-7036

| 배 포 일<br>보 도 일           | 2023. 4. 26.<br>배포 즉시 | 쪽수 | 사진 | 누리집         | 자료 문의                                     |
|--------------------------|-----------------------|----|----|-------------|---|
| 경기문화재단<br>생활문화 정책 토론회 개최 |                       | 3  | 1  | www.ggcf.kr | 부서 : 정책실<br>담당 : 김종헌<br>전화 : 031-231-7255 |

## 경기도 생활문화정책, 지역과 함께 상생 방안 논의

-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 지역화 방안 토론회 열어
- ▶ 정부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경기도 생활문화정책과 기초 지자체 협력 방안 등 논의
- ▶ 생활문화 개념 광범위하지만 경기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상생하는 정책 펼쳐야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은 4월 25일(화)에 '생활문화정책 지역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첫 번째 문화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최근 현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이행전략 등 정책이슈에 따른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열린 첫 번째 토론회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생활문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과 체계, 그리고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이 각각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단위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 이슈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는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 임은옥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팀장, 최지호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 주홍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등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은 최근 생활문화정책이 그 정책개념에 비해 현장에서 더욱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문화예술 장르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활동까지 포괄하는 추세라며, 이를 반영해 앞으로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결합하는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정책'을 실행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은 생활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개인의 변화와 관계의 성장을 도모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전제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해 온 다양한 생활문화정책과 사업을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은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고 기관별로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가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가 생활문화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연수 및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문화자치 시대에 생활문화의 역할이 확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생활체육이 건강한 삶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논리를 제시했듯이, 생활문화도 '정책 효능감'을 명확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 일본의 '고독 장관'의 역할을 생활문화정책이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 생활문화의 정책 영역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최지호 동두천시 주무관은 생활문화정책이 다양한 현장을 기반으로 사람과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인 만큼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책 중요도에서 타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경기도가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역할을 통해 지역인력발굴, 동기부여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최초로 베이비부머과를 신설하였듯이 생활문화도 육아맘, 은퇴세대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역할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각 지자체에 조성되어있는 공공 공유공간을 활용해 생활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향후 경기도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 으로 열어 공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1> 지난 25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생활문화정책 지역 화 방안' 문화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2>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한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방안 토론회 포스터